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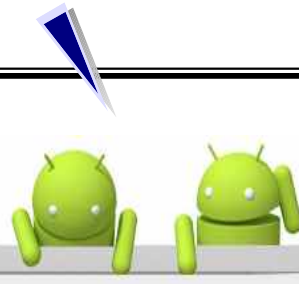


2018수능 생활과 윤리 최종 점검

단기생윤 강상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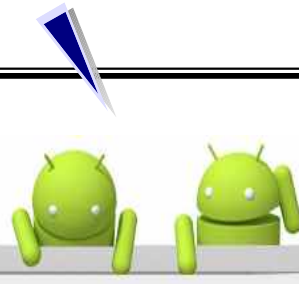
수능
0 X
생윤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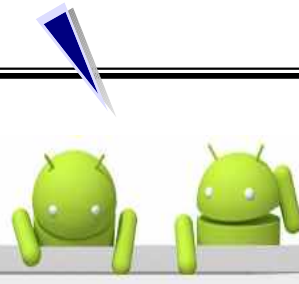
1. 응용 윤리와 윤리 탐구의 문제

번 호	사상가	선택지	정오
1	응용 윤리학	현실에서 적용 가능한 실천적인 규범과 원칙을 핵심적으로 탐구해야 한다.	○
2	응용 윤리학	가치 갈등에 대해 도덕적, 합리적으로 정당화 가능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.	○
3	응용 윤리학	윤리학은 자연 과학 또는 사회 과학적 사실과의 정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.	X
4	응용 윤리학	행위의 도덕적 옳고 그름이 사회에 따라서 다르다는 사실을 연구해야 한다.	X
5	응용 윤리학	전통 윤리학의 학제적 성격에서 벗어나서 독자적 이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.	X
6	이론 윤리학	모든 도덕 행위자들에게 타당한 도덕 규범의 일관된 체계를 구성해야 한다.	○
7	이론 윤리학	도덕 규범을 고립된 정의적 표현이나 태도로 환원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.	X
8	이론 윤리학	도덕 주체의 행위와 태도를 단순히 설명하고 묘사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.	○
9	이론 윤리학	신, 이성 또는 행복하려는 욕구와 같은 도덕적 책무의 원천을 탐구해야 한다.	○
10	이론 윤리학	윤리 이론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메타 윤리학의 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.	○
11	메타 윤리학	도덕적 용어의 의미와 진술의 논리적 관계 파악을 주요 과제로 삼아야 한다.	○
12	메타 윤리학	도덕적 행위 이면의 가치의 본질과 정당화의 논거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.	X
13	메타 윤리학	도덕적 신념이 참 또는 거짓으로 확증될 수 있는 지를 분석해야 한다.	○
14	메타 윤리학	도덕적인 추론의 타당성이 아니라 도덕적인 언어의 의미를 분석해야 한다.	X
15	메타 윤리학	도덕적인 행위를 의미론적으로 분석하고 논리적인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.	X
16	기술 윤리학	도덕적 풍습과는 달리 개인이 가진 도덕적 판단은 정확하게 기술될 수 없다.	X
17	기술 윤리학	도덕의 사회적 양식은 역사학, 인류학, 사회학적 분석을 통해 규명될 수 있다.	○
18	기술 윤리학	윤리학은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윤리 의식이나 가치관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다.	X
19	기술 윤리학	과학적인 탐구를 통해 현실적인 도덕에 대한 경험적인 지식을 추구해야 한다.	○
20	기술 윤리학	경험 과학적 연구를 통해 도덕 현상의 이면에 있는 인과관계를 밝혀야 한다.	○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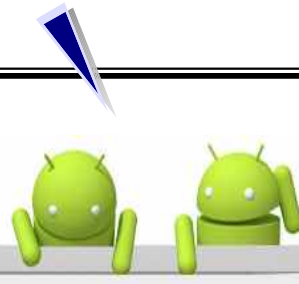
2. 윤리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

번 호	사상가	선택지	정오
21	칸트	인간에게는 정언 명령을 자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의지의 자율이 있다.	○
22	칸트	의지란 이성을 활용하여 선택하고 인식한 것만을 선택하는 본성적 경향성이다.	X
23	칸트	세상의 모든 존재는 보편화 가능한 도덕 법칙에 근거한 의무를 실천해야 한다.	X
24	칸트	인간을 결코 한낱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.	○
25	칸트	상반되는 도덕적 의무가 충돌할 경우 의무의 가치 서열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.	X
26	공리주의	쾌락 또는 행복 그 자체가 목적으로서 추구해야 할 본래적인 가치는 아니다.	X
27	공리주의	공동체 구성원인 개인들의 쾌락과 안전이 입법자가 고려할 유일한 목적이다.	○
28	공리주의	경향성의 충족으로서의 행복을 도덕적 행위의 목적으로 간주해야 한다.	○
29	행위 공리주의	행위에 대한 유용성을 계산하고 도덕적 직관에 부합하는 행위를 해야 한다.	X
30	규칙 공리주의	행위에 대한 규칙의 타당성을 결정하는 척도는 바로 유용성이다.	○
31	배려 윤리	도덕성은 인지적 판단 능력이며 도덕적인 판단 기준이 되는 원리는 배려이다.	X
32	배려 윤리	전체로서의 도덕성은 정의와 배려와 구성되며 양자는 상호 보완적 관계이다.	○
33	배려 윤리	배려받는 사람은 상대의 배려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몰두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.	X
34	배려 윤리	남성성은 독립을 통해서 규정되고 여성성은 애착 관계를 통해서 규정된다.	○
35	배려 윤리	도덕 법칙의 보편성 보다는 구체적인 상황이나 맥락을 더 강조해야 한다.	○
36	덕 윤리	행위의 도덕성은 사회 공동체 전통의 실천과 관련해서 결정되어야 하는가?	○
37	덕 윤리	의무론과 공리론은 행위자 내면의 도덕성과 인성의 중요성을 간과한다.	○
38	덕 윤리	공리론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공동체의 전통을 무시한다.	○
39	덕 윤리	무슨 일이든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일에 뛰어드는 것이 진정한 용기이다.	X
40	덕 윤리	덕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삶을 더 잘 살 수 있다.	○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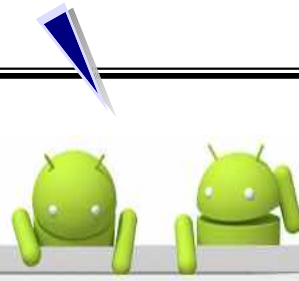
3. 삶과 죽음의 윤리

번 호	사상가	선택지	정오
41	플라톤	죽음은 인간에게 참된 실재를 파악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다.	○
42	플라톤	죽음이란 영혼 불멸의 삶에 대한 약속이므로 기쁘게 받아 들여야 한다.	X
43	플라톤	죽음이란 불멸의 영혼이 육체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는 과정이다.	○
44	에피쿠로스	죽음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하게 되면 죽을 수 밖에 없다는 사실도 즐겁게 된다.	○
45	에피쿠로스	죽음을 통해 몸의 고통과 마음의 혼란에서 벗어나 진정한 쾌락을 느낄 수 있다.	X
46	에피쿠로스	죽음은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무의 상태이므로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.	○
47	하이데거	죽음에 대한 불안에서 도피하지 말고 죽음을 용기 있게 받아 들여야 한다.	○
48	하이데거	죽음이 유발하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존적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.	X
49	하이데거	죽음의 불안은 인간이 자신의 일상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자극을 준다.	X
50	유교	도덕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할 수도 있어야 한다.	○
51	유교	죽음이란 마땅히 애도해야 하는 일인 동시에 자연에 순응하는 과정이다.	○
52	유교	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서 현세에서의 의로움의 실천에 힘써야 한다.	X
53	유교	백성이 의롭게 되는 일에 전력을 다하면서 귀신을 공경하되 멀리해야 한다.	○
54	불교	죽음이란 삶의 번뇌가 소멸된 상태이며 다른 존재로 윤회하는 출발점이다.	X
55	불교	현세에서의 도덕적 실천을 통해서 삶과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야 한다.	X
56	불교	무명(無明)에 가려진 상태의 중생들은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.	○
57	불교	내생에서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현생에서의 도덕적인 수행이 필요하다.	○
58	도가	기가 변해서 생명이 생겨나고 그 생명에 의해서 형체가 만들어지는 것이다.	X
59	도가	삶을 죽이고 초월하려는 자에게 죽음은 없다.	○
60	도가	삶은 자연의 기운[氣]을 잠시 빌리고 있는 것일 뿐이다.	○



4. 생명과학과 윤리 / 5. 성과 사랑의 윤리

번 호	사상가	선택지	정오
61	헬싱키 선언	적절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서 인체실험을 해야 한다.	○
62	헬싱키 선언	회복 불가능한 손상이 예상되는 실험은 다른 실험으로 대체를 해야 한다.	○
63	헬싱키 선언	대상자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실험이 끝난 후에 위험을 알려야 한다.	X
64	헬싱키 선언	실험 대상자의 이익은 과학 발전과 사회의 이익에 앞서 적절하게 고려해야 한다.	○
65	헬싱키 선언	개인적 보상에 목적을 두고 자발적으로 동의한 대상자에 대한 실험은 정당하다.	X
66	배아실험 반대	인간 배아 복제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연구에 속하는 것이다.	○
67	배아실험 반대	인간 배아의 손실을 유아의 죽음과 동일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.	X
68	배아실험 반대	인간 배아는 단지 인간이 될 수 있는 가능태에 불과한 것이다.	X
69	배아실험 찬성	인간 개체의 출발점은 착상이 아니라 수정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.	X
70	배아실험 찬성	단순한 세포 덩어리에 불과한 인간 배아의 가치는 효용성에서 찾아야 한다.	○
71	에리히 프롬	사랑은 상대방을 소생시키고 생동감을 증대시켜 서로의 성장을 낳는 과정이다.	○
72	에리히 프롬	사랑은 고통을 감수하는 희생이라는 의미에서 주는 것을 덕으로 삼아야 한다.	X
73	에리히 프롬	사랑은 상대의 요구에 자발적으로 책임을 느끼고 성실하게 응답하는 것이다.	○
74	에리히 프롬	진정한 사랑을 위해서는 관심, 책임, 지식, 존중의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.	○
75	보수주의	성적 관계는 남녀 간의 인격적 만남과 제도적 책임을 전제로 해야 한다.	○
76	보수주의	출산에 이르지 못하는 방식으로 성을 사용하는 것은 부도덕한 것이다.	○
77	중도주의	사랑이 없는 성은 몸과 마음이 분리되는 인격의 파편화를 겪게 된다.	○
78	중도주의	상호 간의 자발적 합의만 있다면 출산과 무관한 성도 도덕적으로 정당하다.	X
79	자유주의	성을 출산, 결혼, 사랑과 같은 외래적 목적에 대한 수단으로 간주하면 안 된다.	○
80	자유주의	성의 진저한 가치는 쾌락에 있으므로 사랑과 무관한 성도 도덕적일 수 있다.	○



6. 가족 · 친구 · 이웃관계의 윤리 / 7. 과학 기술과 윤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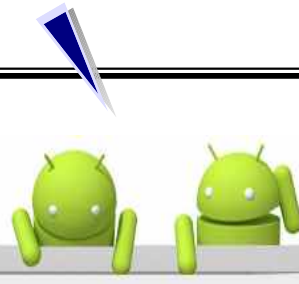
번 호	사상가	선택지	정오
81	유학	부부 관계는 음양 관계와 같아서 고정 불변의 역할이 있는 것이 아니다.	○
82	유학	두 성(姓)이 합하여 조상을 섬기고 후세를 잇는 혼례는 예의 근본이다.	○
83	유학	부부 사이에는 보본(報本)의식을 바탕으로 한 봉양(奉養)이 요구된다.	X
84	유학	부부는 수족지(手足之義)의 관계로 서로 도와주며 살아가야 한다.	X
85	유학	부자간 정직은 친애(愛)보다 올바름(義)을 우선해야 한다.	X
86	유학	효는 부모에 대한 보은(報恩)과 존경을 실천하는 것이며 모든 행실의 근본이다.	○
87	유학	부자간의 효(孝)와 형제간의 제(悌)는 인을 실천하는 첫 걸음이다.	○
88	유학	부모에 대한 효의 의무는 부모가 모두 돌아가실 때에야 비로소 종료된다.	X
89	유학	동기간(同氣間)에는 의(義)가 상하더라도 서로 잘못을 깨우치도록 해야 한다.	X
90	유학	사회적 장유(長幼)관계에서의 도리는 형제간에 지켜야 할 도리의 토대가 된다.	X
91	유학	형제끼리 사랑하지 않는 것은 자기 부모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.	○
92	유학	본래 한 기운에서 태어난 존재인 형제간에는 협동과 경쟁이 공존한다.	○
93	유학	친구의 고통을 나누어서 느낄 수 있는 할반지통(割半之痛)의 자세가 요구된다.	X
94	아리스토텔레스	이익과 쾌락만 추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떠한 우정도 맺을 수가 없다.	X
95	아리스토텔레스	유용성만으로 친구들을 사귈 경우에는 나쁜 사람들이 서로 친할 수도 있다.	○
96	야스퍼스	기술이 인간과 전혀 무관하게 광기를 부릴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.	X
97	야스퍼스	기술은 그러한 기술을 실현시키는 것과는 독립해 있는 자립적인 존재이다.	○
98	하이데거	기술을 종립적인 것으로 고찰할 때 인간은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내맡겨진다.	○
99	호르크하이머	근대적 이성인 인간 및 자연을 지배하기 위해 도구화되어 버렸다.	○
100	막스베버	과학적 진실이란 진리를 탐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타당한 것이다.	○

8. 환경과 윤리

번 호	사상가	선택지	정오
101	아리스토텔레스	자연은 목적이 없는 일을 하지 않으므로 동물은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.	○
102	아리스토텔레스	사물의 질서는 완전한 것이 불완전한 것을 위해 존재하는 방식으로 형성된다.	X
103	아리스토텔레스	신의 섭리에 의해 동물은 자연의 과정에서 인간이 사용하도록 운명 지어졌다.	X
104	아리스토텔레스	생명체는 자기 보존을 향해 움직이는 목적 지향적 활동의 단일화된 체계이다.	X
105	아리스토텔레스	산다는 것이나 감각을 동반하는 삶은 인간에게만 고유한 특성은 아니다.	○
106	데카르트	인간과 달리 동물은 영혼과 육체가 단순하게 결합된 자동 기계일 뿐이다.	X
107	데카르트	자연의 존재들이 지닌 내재적 가치를 파악하여 자연을 지배해야 하는가?	X
108	데카르트	이성이 없는 존재자들은 단지 수단으로서의 상대적인 가치만을 가진다.	○
109	데카르트	동물들의 뛰어난 재주는 그들 속에 존재하는 기관들의 작동에 의한 것이다.	○
110	데카르트	인간은 이분법적 시각으로 자연을 다루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.	X
111	칸트	인간은 도덕적 행위의 주체로서 동물과는 달리 이익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.	X
112	칸트	인간이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는 인간의 동정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.	○
113	칸트	동물을 잔인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와 배치된다.	○
114	칸트	인간은 자연 그 자체에 대해서 특별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.	X
115	칸트	동물에 대한 우리의 의무는 인간성 실현을 위한 간접적인 도덕적 의무이다.	○
116	패스모어	생태계 파괴는 현재와 미래의 인간에게 손해를 입히므로 금지되어야 한다.	○
117	패스모어	도덕적 고려의 대상을 미래 세대와 생태계의 모든 존재로 확장해야 한다.	X
118	패스모어	자율성과 이성적 능력을 지닌 인간만이 도덕적 행위의 주체이다.	○
119	패스모어	인간은 자신을 생명의 의지 한 가운데 서 있는 생명 의지로 파악해야 한다.	X
120	패스모어	미래 인간을 위해 자연의 내재적 가치를 존중하고 분별력 있게 사용해야 한다.	X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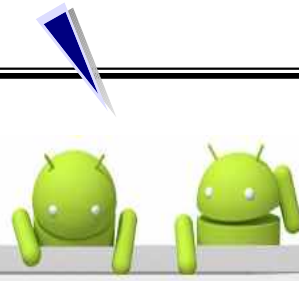


번 호	사상가	선택지	정오
121	싱어	종 차별주의를 극복함으로써 진정한 이타성을 발휘해야 한다.	○
122	싱어	동물은 스스로 해방을 요구할 능력이 있으므로 도덕적 고려 대상에 포함된다.	X
123	싱어	부당하게 당하는 고통으로부터 동물을 해방시키는 것은 도덕적 의무에 해당한다.	○
124	싱어	타자의 이익을 고려할 때 감각만이 유일하게 옹호 가능한 경계선은 아니다.	X
125	싱어	인간이 느끼는지 또는 동물이 느끼는지는 고통에 대한 평가와는 상관이 없다.	○
126	레건	삶의 주체에 해당하는 동물과 해당되지 않는 동물의 경계가 명확하게 존재한다.	X
127	레건	욕구, 지각, 기억, 미래에 대한 의식을 지닌 삶의 주체는 자신의 복지를 갖는다.	○
128	레건	쾌고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만 도덕적 고려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.	○
129	레건	동물을 인간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만 간주하는 동물 사냥은 정당하지 않다.	○
130	레건	감정적인 생활과 희망과 목적을 추구하는 삶의 주체는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.	○
131	테일러	인간이 다른 생명체보다 본래적으로 우월한 존재라고 간주해서는 안 된다.	○
132	테일러	인간은 지구 생명 공동체의 상호 의존 체계에 구속되어 있는 존재이다.	○
133	테일러	인간은 생명체의 생존에 유리하도록 생태계를 개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.	X
134	테일러	도덕적 대상은 도덕 행위자의 권리 행사를 위한 도구적 존재의 지위를 갖는다.	X
135	테일러	도덕적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는 존재이다.	○
136	레오폴드	생태계의 모든 유기체와 무생물을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실체로 간주해야 한다.	X
137	레오폴드	바람직한 대지 이용을 윤리적, 심미적으로 무엇이 옳은가의 관점에서 검토하라.	○
138	레오폴드	인간에게 전체 공동체의 건강한 유지를 위한 도덕적 책임과 의무가 부과된다.	○
139	레오폴드	생태계의 안정과 균형은 개별 생명체의 존속이라는 목적에 종속되어야 한다.	X
140	레오폴드	생태계의 온전성과 안정에 기여하지 못하는 생명은 도덕적 고려 대상이 아니다.	○



9. 정보 사회와 윤리 / 13. 예술·종교와 윤리

번 호	사상가	선택지	정오
141	정보 공유론	정보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접근하고 공유해야 할 상호 협력의 산물이다.	○
142	정보 공유론	정보의 생산성을 강화하는 것보다 정보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이 더 중요하다.	X
143	정보 공유론	정보의 공공재적 성격을 강화해 양질의 정보 생산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.	○
144	정보 사유론	어떤 것을 발견하거나 합법적으로 소유한 사람에게 소유권을 부여해야 한다.	○
145	정보 사유론	정보가 부유층의 전유물이 될 경우에는 정보 생산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.	X
146	정보 사유론	정보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게 된다면 정보의 진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.	○
147	잊힐 권리	개인적인 사생활 보호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알 권리를 더 우선해야 한다.	X
148	잊힐 권리	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삭제할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.	○
149	알권리	알권리를 통해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정보의 자기 통제권을 강화해야 한다.	X
150	알권리	자기 정보에 대한 배타적 관리권 절대적인 권리로 보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.	X
151	아도르노	대중 문화는 산업을 자처하며 대중을 기만하고 그들의 의식을 속박한다.	○
152	아도르노	예술 본연의 목적은 일상적인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.	X
153	발터 벤야민	예술 작품에 대한 기술적 복제는 수공적인 복제보다 더 큰 독자성을 지닌다.	○
154	발터 벤야민	예술 작품의 기술적 복제 가능성은 원작이 가진 유일성의 가치를 높여 준다.	X
155	엘리아데	성화(聖化)된 자연 안에서 인간은 도덕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.	○
156	엘리아데	종교란 '일상성'과 '비일상성'의 사이에서 빚어진 삶의 경험이 드러난 현상이다.	○
157	심미주의	예술 세계에서 중요한 것은 오차 없는 진실이 아니라 아름다운 거짓이다.	○
158	심미주의	예술가는 다른 사람의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의도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.	X
159	도덕주의	음악에서 노랫말이 중심이 되며, 선율과 리듬은 노랫말을 따라야 한다.	○
160	도덕주의	리듬과 하모니는 영혼의 내부에 우아함을 심어주고 영혼을 활기치게 만든다.	○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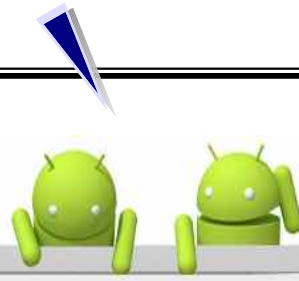


10. 사회 윤리와 사회 정의 / 11. 인권 존중과 공정한 사회

번 호	사상가	선택지	정오
161	니부어	집단으로서의 개인들은 스스로 집단의 힘이 명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한다.	○
162	니부어	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외부적 강제력은 개인의 도덕성에 대해 배타적이다.	X
163	니부어	자연적 충동을 억제할 만큼 강력한 합리적 사회 세력을 만드는 것은 어렵다.	○
164	아리스토텔레스	부족과 같은 소규모의 사적 공동체는 선의 증진을 방해하는 요인에 해당한다.	X
165	아리스토텔레스	분배에서의 옳음은 어떤 의미에서든 가치에 따라야 한다는 데 모두가 동의한다.	○
166	아리스토텔레스	정치학 분야에서의 선은 정의이며, 정의는 공익을 증진하는 데 있다.	○
167	롤스	상호 무관심한 사람들이 경제적 지식을 모른 채 분배의 원칙을 합의해야 한다.	X
168	롤스	전체의 더 큰 선을 보장하기 위해 소수자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.	X
169	롤스	올바른 결과에 대한 독립된 기준이 없어도 정의로운 분배를 실현할 수 있다.	○
170	롤스	차등의 원칙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도덕의식에 의해서 정당화되는 것이다.	X
171	롤스	정의로운 사회는 모든 사람의 이익이 균등하게 증진되는 사회 협동체이다.	X
172	노직	결과의 공정성을 절차의 공정성으로 환원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.	X
173	노직	자기 노동의 산물인 모든 것에 대해서 소유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.	○
174	노직	과거의 상황이나 행위는 사물에 대한 응분의 소유 자격을 창조한다.	○
175	노직	부의 소유와 거래 및 교정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.	X
176	노직	각자는 자신이 선택한 대로 주고, 각자는 자신이 선택받은 대로 받아야 한다.	○
177	마르크스	국가가 소멸된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분배는 오직 개인의 자유에 맡겨야 한다.	X
178	마르크스	능력에 따른 노동과 필요에 따른 분배가 실현되는 사회가 필연적으로 도래한다.	○
179	칸트	범죄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위해서 사형제도는 존치되어야 한다.	○
180	칸트	형벌은 보복을 의욕한 것에 대한 응보적 처벌로서 공적 정의의 실현 수단이다.	X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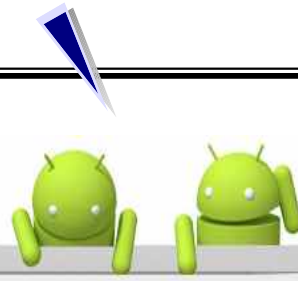


번 호	사상가	선택지	정오
181	칸트	시민적 인격성을 박탈하는 형벌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.	○
182	칸트	사형은 정의가 정언명령에 따라서 보복을 의욕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다.	○
183	칸트	형벌이 부과하는 고통은 범죄자의 존엄성 보장에 부합해야 한다.	○
184	벤담	모든 형벌은 지속성보다는 강도를 중시하면서 과도하지 않게 집행되어야 한다.	X
185	벤담	형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처벌의 본보기 효과를 통해 효용을 증진하는 것이다.	○
186	벤담	사회 전체의 이익보다 살인범의 생명권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.	X
187	벤담	사람들에게 살인범의 끝없는 비참한 상태를 보여주는 것의 예방효과가 더 크다.	X
188	벤담	형벌로 인한 범죄자의 고통이 위법 행위의 이득보다 커야 한다.	○
189	베카리아	형벌 및 그 집행의 수단은 범죄와 형벌 간의 비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.	○
190	베카리아	인간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고통에 의해서 자신의 행동을 규제하게 된다.	X
191	베카리아	형벌은 타인들의 범죄 억제에 충분한 정도의 강도(強度)만을 가져야 한다.	○
192	베카리아	사형은 유용성의 원리가 아니라 인간 존중의 이념에 위배되는 형벌이다.	X
193	베카리아	형벌은 범법자에게 교정과 무력화로, 다른 사람에게는 본보기로 작용한다.	○
194	롤스	다수의 정의관에 어긋나는 법에 저항하고 압박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.	○
195	롤스	부정적인 결과가 예상되는 법률에 대해서는 예방적인 차원의 불복종이 필요하다.	X
196	롤스	정치적 다수자에 대한 정상적인 호소가 받아들여 지지 않을 때 불복종해야 한다.	○
197	롤스	다수결로 결정된 법률에 불복종하는 것은 다수의 정의관에 대한 불복종이다.	X
198	소로	법이 자연법에 비추어 형평성보다 독단에 치우쳐 있다면 그에 저항해야 한다.	○
199	소로	인간은 언제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할 의무를 실천해야 한다.	○
200	소로	시민 불복종이 성공하리라는 합당한 전망이 있어야만 정당화 될 수 있다.	X



12. 직업 윤리 / 14. 의식주 윤리와 다문화 사회의 윤리

번 호	사상가	선택지	정오
201	플라톤	수호자 계층은 재산의 공유와 공동생활을 통해 금욕적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.	○
202	플라톤	각 계층의 상호적인 협력과 견제를 통해서 정의로운 사회를 유지할 수 있다.	X
203	플라톤	공직자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공사(公私)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.	○
204	플라톤	타고난 성향에 따라서 사회적 역할을 결정하는 것은 사회의 부정의를 강화한다.	X
205	칼뱅	지속적이고 체계적이며 내세적인 직업 노동이 최고의 금욕 수단이다.	X
206	칼뱅	인간은 구원을 예정해 놓은 신의 부르심에 노동을 통해 응답해야 한다.	○
207	칼뱅	우리가 각각의 소명에 충실하지 않을 때에는 만사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.	○
208	칼뱅	금욕적 노동을 통해 축적한 재화를 이용해 불로소득을 얻는 것은 비윤리적이다.	X
209	마르크스	사유 재산을 적극적으로 지양하면 모든 소외가 지양된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다.	○
210	마르크스	자발적이고 분업적인 노동을 통해 노동의 본래적 가치의 회복을 지향해야 한다.	X
211	마르크스	노동자는 분업 노동자의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본 축적에 집중해야 한다.	X
212	마르크스	분업 체제에서 노동자는 특수한 기능만을 담당하는 부분 노동자로 전락한다.	○
213	맹자	경계를 바로 잡고 토지를 바르게 지급하면 나라가 기름지게 될 것이다.	○
214	맹자	통치자는 스스로 농사를 지어 자급자족하면서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.	X
215	순자	직업은 재화에 대한 각자의 욕망을 인정하는 동시에 절제하는 수단이다.	○
216	순자	백성들의 직업 활동은 욕망의 충족과 무관하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.	X
217	정약용	청렴한 목민관에게 청백리(淸白吏) 칭호는 관직 상승의 효과적 수단이다.	X
218	용광로 모델	이민자들의 문화적 전통과 고유성은 언제나 제한 없이 받아들여져야 한다.	X
219	샐러드 모델	서로 다른 다양한 문화가 한 사회 안에서 평등하게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.	○
220	국수대접 모델	이민자들은 거주국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기존의 사회 질서에 편입되어야 한다.	X



15. 평화와 윤리

번 호	사상가	선택지	정오
221	롤스	정치 문화는 한 사회의 부와 복지 수준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다.	○
222	롤스	국가들 간의 부와 복지 수준을 조정하는 것은 원조 의무의 목표가 아니다.	○
223	롤스	절대 빈곤 해결을 위한 원조를 보편적인 의무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.	X
224	롤스	해외 원조는 원조국의 정치적이고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.	○
225	롤스	원조는 국가들이 원초적 상태에서 합의를 통해서 도출한 국제주의적 의무이다.	X
226	싱어	해외 원조는 그 결과와 무관하게 빈곤자들에 대한 관심의 실천이다.	X
227	싱어	전 인류의 행복 최대화를 위해서 분배의 전 지구적 단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.	○
228	싱어	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행위는 칭찬할 만한 것이다.	○
229	싱어	행복 증진과 관련하여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대해서만 특별한 의무를 지닌다.	X
230	싱어	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국가별로 해외 원조의 수준은 동일해야 한다.	X
231	칸트	모든 국가는 다른 국가의 체제와 통치에 폭력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.	○
232	칸트	국제적 제도와 민주적 여론을 통한 국가 간 신뢰의 확대가 평화의 필수조건이다.	○
233	칸트	타국의 비도덕적인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상비군은 유지해야 한다.	X
234	칸트	국가 간 세력 균형이 아니라 국가 정체성의 구성을 통해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.	X
235	아퀴나스	부당한 점유의 반환을 거부하는 국가에 대한 징벌 목적의 전쟁 개시는 정당하다.	○
236	아퀴나스	개별 국가의 폭정은 전쟁 선포의 정당한 명분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.	X
237	왈처	자결주의에 입각한 내정 불간섭 원칙의 예외적 상황을 인정받을 수 있다.	○
238	왈처	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전쟁에 호소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하다.	○
239	현실주의	국가는 전쟁을 통한 이익이 전쟁의 손실보다 클 경우 전쟁의 위험을 감수한다.	○
240	현실주의	국가간 분쟁은 군비의 증강이나 다른 국가와의 동맹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.	○